

이 자료는 **8월 22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21일(화) 12시]

배포일 2018년 8월 20일(월) (총 7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최주승 대리 (043-880-5834)
----------------------------------	---------------------	---

##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 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회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공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 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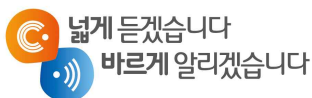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 붙임 >

### 1 **위해사례 분석 결과**

- (접수현황) 최근 5년 5개월간('13.1.1.~'18.5.3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임.
- 특히, '사망'\* 사고가 5건(14.3%) 접수됨.

\* 해외 발생 위해사례

#### [ 연도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위해사례	10	4 (사망 1)	2	5	8 (사망 2)	6 (사망 2)	35 (사망 5)

- (연령)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건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13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건(21.2%), '30대' 6건(18.2%), '10세 미만' 3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위해사례 (비율)	3 (9.1)	13 (39.3)	7 (21.2)	6 (18.2)	2 (6.1)	2 (6.1)	33 (100.0)

\*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건 분석

- (위해내용) 위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부딪힘'이 14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놀림·끼임' 6건(17.6%), '미끄러짐·넘어짐' 3건(8.8%), '베임' 및 '물리적 충격' 각 2건(5.9%) 등의 순이었음.

#### [ 위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딪힘	미끄러짐· 넘어짐	놀림·끼임	베임	물리적 충격	기타**	합계
위해사례 (비율)	14 (41.2) (사망 2)	3 (8.8)	6 (17.6) (사망 2)	2 (5.9)	2 (5.9)	7 (20.6)	34 (100.0)

\* 위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34건 분석

\*\* '추락' 등

- (위해증상)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27건을 분석한 결과, '열상(찢어짐)'이 5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4건(14.8%), '뇌진탕', '염좌', '타박상' 및 '박리(벗겨짐)' 각 3건(11.1%), '찰과상', '화상' 각 2건(7.4%) 등의 순이었음.

[ 위해증상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열상 (찢어짐)	골절	뇌진탕	염좌	타박상	박리 (벗겨짐)	찰과상	화상	기타*	합계
위해 사례 (비율)	5 (18.6)	4 (14.8)	3 (11.1)	3 (11.1)	3 (11.1)	3 (11.1) (사망 2)	2 (7.4)	2 (7.4)	2 (7.4)	27 (100.0)

\*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27건 분석

- (발생지역) 위해 발생지역 확인이 가능한 25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19건(76.0%)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3건(12.0%), '경기' 2건(8.0%), '울산' 1건(4.0%) 순이었음.

[ 지역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강원	경기	울산	제주	합계
위해사례 (비율)	3 (12.0)	2 (8.0)	1 (4.0)	19 (76.0)	25 (100.0)

\* 위해 발생지역 확인이 가능한 25건 분석

□ 주요 위해사례

사례1	▶ 카트 핸들에 부딪혀 열상 발생 2013년 7월 만 11세 여아가 카트 체험 중 핸들에 부딪혀 턱 아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음.
사례2	▶ 카트 엔진 열에 의해 화상 발생 2014년 10월 만 42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엔진 열에 의해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음.
사례3	▶ 카트 충돌 사고로 골절 발생 2016년 3월 만 29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난 카트와 충돌해 발가락 골절상을 입음.
사례4	▶ 주행 중인 카트에서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 발생 2017년 11월 만 37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주행 중이던 다른 카트에서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이 발생함.
사례5	▶ 카트 바퀴에 머리카락이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해외) 2018년 2월 만 37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머리카락이 카트 뒷바퀴에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함.
사례6	▶ 카트 충돌 후 안전벨트 끊어져 골절 발생 2018년 4월 만 32세 남성이 카트 체험 중 회전구간에서 벽에 충돌했는데,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핸들에 흉부를 부딪혀 늑골이 골절됨.

## 2

## 안전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실외 카트체험장 20개소(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계
	1	3	3	1	
	경북	전남	제주		
	2	1	9		

■ 조사기간 : 2018. 3. 20. ~ 4. 16.

■ 조사내용 : 카트체험장 운영실태(보험가입 현황, 안전장비 제공 현황, 트랙 설치관리실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 카트 관리실태(주요 장치 작동 및 파손, 안전벨트 설치 유무 등)

□ (유원시설업 여부) 20개소 모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업체 대조·확인

○ 이는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카트체험장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임.

□ (보험가입) 3개소(15.0%)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손해를 보상·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요원) 카트체험장 면적, 1회 동시 이용자수 등에 따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나, 11개소(55.0%)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이 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 운영요원 배치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운영요원 수				합계
	1명	2명	3명	4명	
업체 수 (비율)	11 (55.0)	5 (25.0)	2 (10.0)	2 (10.0)	20 (100.0)

□ (안전교육) 8개소(40.0%)는 카트 주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 [ 안전교육 실시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합계
	구두	영상	구두+녹취기록		
업체 수 (비율)	10 (50.0)	1 (5.0)	1 (5.0)	8 (40.0)	20 (100.0)

- (주행로 표면) 5개소(25.0%)는 카트 주행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했음.
- (주행로 외곽 추락·전도 요소) 5개소(25.0%)는 주행로 외곽에 경사 등이 있어 전도,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확인됐음.
- (주행로 외곽 펜스) 12개소(60.0%)는 주행 중 카트 미탑승자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를 주행로 일부 또는 전 구간에 설치하지 않았음.
- (관람객 보호조치) 4개소(20.0%)는 주행로 외곽에 관람객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나 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
- (방호벽 결속 상태) 18개소(90.0%)는 충격 흡수용 방호벽 전체를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결속하지 않았음.
- (주행로 내 구조물 안전조치) 8개소(40.0%)는 주행로 내 추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충격흡수용 보호패드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카트체험장 주행로 안전관리 미흡 사례 ]**

주행로 표면 깨짐·갈라짐	주행로 외곽 추락 요소	주행로 외곽 펜스 미설치
		
관람객 보호 미조치	타이어 방호벽 미결속	주행로 내 구조물 안전 미조치
		

- (카트 속도) 19개소(95.0%)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카트 속도기준 (30km/h 이하)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음.
- (안전장비) 11개소(55.0%)는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구비하고 있어도 이용자에게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안전벨트) 12개소(60.0%)는 1인승 또는 2인승 카트 전부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음.
- (타이어) 5개소(20.0%)는 카트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음.
- (범퍼) 6개소(30.0%)는 카트 범퍼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음.
- (카트 부품 안전덮개) 19개소(95.0%)는 회전하는 부품에 이용자의 머리카락, 옷 등이 엉키거나 가열되는 부품에 의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덮개가 일부 또는 전부 설치되지 않았음.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 카트 안전관리 미흡 사례 ]

